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김정현



키움증권

미 증시, 금리 재상승, 월마트 실적 부진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0일(목)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4.0%)의 대규모 AI 투자 발표로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가능성에 따른 국제 유가 및 미국 시장 금리 재상승, 월마트(-9.2%)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소비 경기 위축 우려 등이 전반적인 증시에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다우 -1.3%, S&P500 -0.9%, 나스닥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

지난 19일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에 의해 하락세를 보였던 미 10년, 30년물 등 장기물 시장금리는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 이는 미 재무부의 대응만으로는 추세적인 금리 하락세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국채 발행, AI 투자를 위한 빅테크 업체들의 회사채 발행 등 채권시장의 구조적인 채권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만큼, 추후에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시장 참여자들도 올해 내내 미 10년물 4.5%대 이상, 미 30년물 5.0%대 이상의 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고금리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음. 관건은 속도에 있으며, 급격한 속도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긴축 발작과 같은 증시 불안이 재발할 여지는 낮을 것으로 판단. 또 정부 정책 대응이 추세적인 금리하락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도 속도 조절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나, 케빈 워시 의장 잭슨홀(29일) 연설 이후 연준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차주까지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전일 코스피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에 따른 장기물 금리 급등세 진정,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모멘텀 등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반등에 나서면서 5%대 상승 마감(코스피 +5.9%, 코스닥 +2.0%).

금일에는 마이크로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도, 미국 시장금리 상승, 월마트 실적 부진 등에 따른 나스닥 약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업종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현재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다는 점은 안도 요인. 실제로 8월 20일 기준 코스피의 26년과 2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986조원(vs 7월말 975조원), 1,311조원(vs 7월말 1,311조원)으로 금리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환율 부담이 점증했던 8월 이후에도 별 다른 훼손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 PER이 5.5배에 불과하는 등 밸류에이션상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레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주주환원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국내 고유의 현물 수급 호재(장중 자사주 매입 효과) 속에 증시 전반에 걸친 ROE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 같은 국내 고유의 완충장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 시, 향후 매크로 불확실성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주가 조정 압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실제로 추가적인 증시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주도주인 반도체 포함 대형주 중심의 분할매수 전략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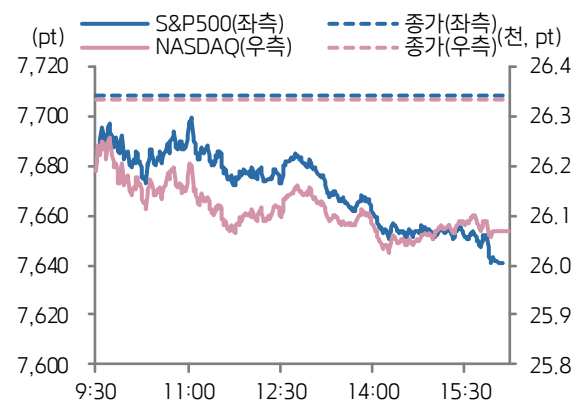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순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외국인 플레이를 복제해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음. 8월 이후 1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지만, 코스피 8월 수익률(+3.9%)에 뒤쳐져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여볼 시점. 대표적으로 (1) 증권(12거래일 순매수, 8월 수익률 -3.7%), (2) 건강관리(10거래일 순매수, 8월 수익률 -7.0%), (3) 소매/유통(10거래일 순매수, 8월 수익률 -5.2%)과 같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초과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코스피, 증권, 소매(유통), 건강관리 주가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최근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들 매매가 코스피 주가 회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기. 그 가운데, 증권, 소매(유통), 건강관리는 이들의 연속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 주가와 외국인 수급의 괴리 현상이 수렴될 가능성에도 베팅해볼 시점.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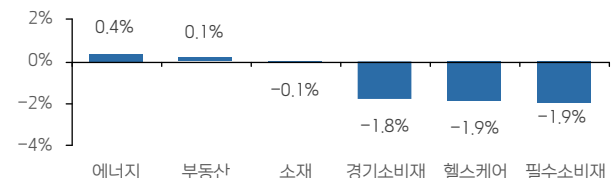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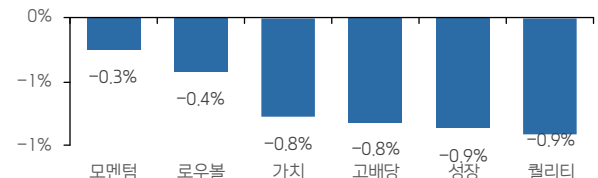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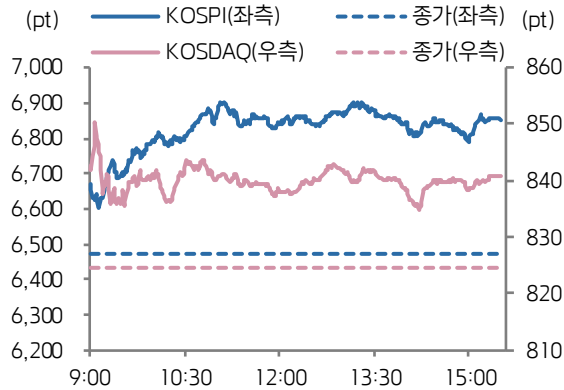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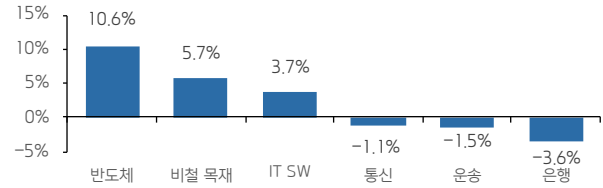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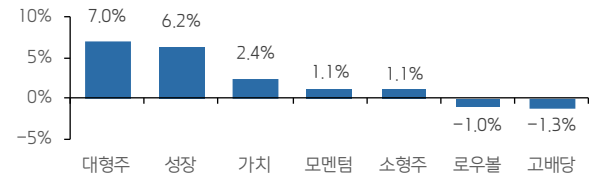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1.30	-1.75%	+14.51%	GM	86.15	+1.4%	+5.94%
마이크로소프트	481.15	-0.65%	-0.51%	일라이릴리	1,244.40	-2.81%	+15.79%
알파벳	340.67	-1.17%	+8.84%	월마트	103.84	-9.15%	-6.79%
메타	545.83	-0.04%	-17.31%	JP모건	351.55	-1.6%	+9.1%
아마존	260.11	-2.16%	+12.69%	엑손모빌	166.15	+0.84%	+38.07%
테슬라	345.13	-1.71%	-23.26%	셰브론	205.77	+0%	+35.01%
엔비디아	216.85	-0.33%	+16.27%	제너럴일렉트릭	103.84	-9.2%	-6.8%
브로드컴	364.03	+0.43%	+5.18%	캐터필러	815.39	-0.09%	+42.33%
AMD	469.46	+0.65%	+119.21%	보잉	215.10	-3.2%	-0.93%
마이크론	974.33	+3.97%	+241.38%	넥스트에라	85.03	-1%	+5.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52.58	+5.89%	+62.61%	USD/KRW	1,394.05	+0.44%	-3.16%
코스피200	1,080.98	+6.75%	+78.39%	달러 지수	98.87	+0.03%	+0.55%
코스닥	840.89	+1.99%	-9.14%	EUR/USD	1.17	+0.01%	-0.58%
코스닥150	1,471.82	+2.72%	-4.88%	USD/CNH	6.73	-0.09%	-3.59%
S&P500	7,641.16	-0.87%	+11.62%	USD/JPY	159.05	+0.56%	+1.49%
NASDAQ	26,067.17	-1%	+12.16%	채권시장			
다우	52,759.21	-1.32%	+9.77%	채권	가격	DTD(bp)	YTD(bp)
VIX	16.01	+7.52%	+7.09%	국고채 3년	3.822	+3.5bp	+87.1bp
러셀2000	2,992.43	-1.34%	+20.57%	국고채 10년	4.322	-1.3bp	+93.7bp
필라. 반도체	11,800.02	+0.53%	+66.59%	미국 국채 2년	4.188	+2.5bp	+71.5bp
다우 운송	21,382.25	-0.37%	+23.19%	미국 국채 10년	4.704	+5.8bp	+53.7bp
상해종합	3,903.72	+0.24%	-1.64%	미국 국채 30년	5.248	+5.7bp	+40.4bp
				독일 국채 10년	3.259	-0.3bp	+40.4bp

항생 H	8,547.84	+0.9%	-4.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537.72	+0.82%	-9.02%	WTI	86.83	+2.89%	+52.3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3.78	+2.36%	+54.12%
Eurostoxx50	6,422.06	-0.35%	+10.89%	금	4,571.40	+0.57%	+1.65%
MSCI 전세계 지수	1,143.50	-0.28%	+12.7%	은	68.11	+3.46%	-3.54%
MSCI DM 지수	4,975.53	+0.08%	+12.3%	구리	646.90	-0.42%	+13.85%
MSCI EM 지수	1,668.38	-1.54%	+18.8%	BDI	2,776.00	-1.39%	+47.9%
MSCI 한국 ETF	178.16	+2.14%	+83.25%	옥수수	503.50	+1.1%	+9.3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00.00	+0.36%	+28.26%
비트코인	72,663.79	+5.25%	-17.1%	대두	1,236.50	-0.06%	+16.16%
이더리움	2,318.07	+4.51%	-22.15%	커피	329.30	+0.34%	+4.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